

호랑이-독수리 '가을 잔치' 기싸움 예고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내일부터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윤영철·양현종·네일 선발 '총력전'
김선빈·나성범·이의리 복귀 임박
엔트리 사수 내부 경쟁 흥미진진

KIA 타이거즈가 '가을 잔치'를 위한 기싸움을 펼친다.
KIA 타이거즈는 8일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른다.
홍행의 중심에 선 두 팀의 흥미로운 맞대결이자 후반기 예고 무대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신음하면서 기대와 다른 시즌을 열었다. 하지만 주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회를 얻은 '함평 타이거즈'의 활약을 바탕으로 뜨거운 6월을 보내면서 뒤늦게 순위 싸움에 뛰어 들었다.
한화는 가장 뜨거운 전반기기를 보내고 있는 팀이다.
KBO리그를 평정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필두로 150km를 가볍게 던지는 '강속구 불펜'으로 선두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남은 3연전 결과에 상관없이 전반기 1위를 확정된 한화는 1승을 더하면 50승에 선착하게 된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3승 5패로 KIA가 열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KIA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KIA는 지난주 SSG 랜더스, 롯데 자이언츠와의 대결에서 연달아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다.
1.5경기 차로 KIA를 쫓던 SSG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1점 차 승리를 거둔 KIA는 롯데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시원한 화력쇼로 2승을 더했다.
4일 경기에서 8회 5득점 빅이닝을 만들면서 7-5 역전승을 만든 KIA는 분위기를 이어 5일 경기에서는 4개의 홈런 포함 장단 17안타로 13-0 대승을 기록했다.
6일에는 초반 마운드 싸움에서 밀리면서 2-5패를 기록했지만 9회 2사 1-3루까지 연출하면서 끝까지



지난 주말 2위 롯데와의 경기에서 위닝시리즈를 거둔 KIA가 타선의 고른 활약과 좋은 수비로 한화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승리를 노린다. KIA 김태군이 지난 6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유강남의 좌측 2루타로 홈에 들어오던 1루 주자 전민재를 태그 아웃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지 상대를 압박했다.
4연승에는 실패했지만 KIA는 투타 밸런스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상 공백을 지운 '잇몸'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타선의 조화가 좋다.
KIA의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 고종욱과 김호령의 활약은 지난주에도 계속됐다.
5일 롯데전에서 1회말 선두타자 홈런으로 화력쇼의 서막을 알렸던 고종욱은 지난주 9개의 안타로 6타점을 올렸다. 결정적인 순간에 타점을 올리면서 3개의 결승타도 기록했다.

하위 타선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김호령은 강렬한 한방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호령은 5일 경기에서 시즌 마수걸이 홈런에 이어 첫 만루포까지 날리면서 첫 발타포를 장식했다. 수비에서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김호령은 KIA 선수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내야의 사령관" 박찬호의 물오른 수비도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3일 8회초 오선우와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면서 SSG 오태곤의 안타를 유격수 땅볼로 단숨에 잡아

찬호는 9회에는 고의 낙구로 상대의 대주자를 덕아웃으로 돌려보내면서 3-2, 1점 차 승리를 완성했다.
5일에는 호수비로 13-0 대승의 판을 깔았다. 박찬호는 1회초 1사 1루에 외야까지 달려 나가 나승엽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 원아웃을 만든 뒤 바로 1루 송구로 연결해 스타트를 끊었던 주자까지 동시에 잡아냈다.
박찬호의 좋은 수비로 1회 위기를 넘긴 김도현은 이후 타선의 지원까지 받아 7이닝 무실점의 승리투

수가 될 수 있었다.
KIA는 윤영철 시작으로 양현종, 네일로 선발 싸움에 나선다. 올스타브레이크를 앞둔 만큼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8-9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를 통해 김선빈, 나성범, 이의리의 실전 테스트도 진행되는 만큼 엔트리를 지키기 위한 선수들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도 예상된다.
타선의 고른 활약 속 기세가 오른 KIA가 한화를 상대로 승수를 쌓고 2위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시우 PGA 시즌 세번째 '톱10' 불발

존디어 클래식 11위 마감

김시우(사진)가 어렵게 시즌 세 번째 톱10을 놓쳤다.
김시우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실버스의 TPC 디어런(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존디어 클래식(총상금 840만달러) 최종 라운드를 공동 11위(15언더파 269타)로 마쳤다.
공동 5위 그룹에 딱 1타가 모자랐다.
올해 PGA 챔피언십 공동 8위 등 두 차례 밖에 톱1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시우로서는 아쉬운 결과다.
특히 김시우는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골라내는 무결점 경기를 펼쳤기에 아쉬움이 더했다.
1라운드에서도 65타를 때렸고 2라운드에서도 4타를 줄였던 김시우는 3라운드에서 1타를 잃은 게 뼈아팠다.
이날 김시우는 그린을 네 번 놓쳤지만 모두 파를 지켰고 14번 버디 퍼트 가운데 6번 성공해 그린 적중 때 퍼트수가 1.57개에 불과할 만큼 홀에 가까워

질수록 플레이를 잘 했다.
우승은 연장전에서 에밀리야노 그리오(아르헨티나)를 꺾은 브라이언 캠펬(미국)에게 돌아갔다.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4언더파 67타를 친 둘은 최종 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18번 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캠펬는 무난하게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 파를 지켰고, 티 샷을 러프로 보낸 그리오는 그린을 놓친 뒤 6m 파 퍼트를 넣지 못했다.
지난 2월 멕시코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따냈던 캠펬는 5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멕시코 오픈에서도 올드리치 포트거터(남아프리카공화국)를 연장전에서 꺾었던 캠펬는 두 번의 우승을 모두 연장전에서 따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데이비드 립스키(미국)는 18번 홀(파4) 보기로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하고 공동 3위(17언더파 267타)에 만족해야 했다.
최종 라운드를 선두로 시작해 대회 2연패를 바라봤던 데이비드 톰프슨(미국)은 1오버파 72타로 부진, 공동 18위(14언더파 270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목포서 전남 축구 꿈나무 불꽃 경쟁

목포시 i-리그 개막 4개 부문 27개팀 경쟁

전남 22개 시군 유일의 유·청소년 축구 리그가 목포에서 개막했다.
목포시 i-LEAGUE가 지난 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전남 지역 27개의 학교 및 클럽팀이 참가하는 이번 i리그는 오는 12월까지 8회에 걸쳐 리그전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U-8(5팀), U-10(5팀), U-15(12팀), U-18(5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다.
i-LEAGUE는 'infinite(무한한), imagine(상상하다), impress(감동하다)'를 기치로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 우수 선수 발굴, 학교 체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다.
목포시체육회는 i-LEAGUE가 출범한 2013년부터 i리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



지난 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목포시 i-LEAGUE가 개막했다. 목포덕인중(왼쪽)과 문태중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체육회 제공)

공모를 통한 3080만원의 사업비와 2400여만원의 시비를 들여 2025리그를 진행한다.
한편 대한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25년 i리그는 전국 40개 지역에서 펼쳐지며 유·청소년 축구클럽 1200여개 팀, 1만4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연령별 경기와 함께 지역 문화 행사도 열린다. 여름방학 중에는 '여름축구축제'가 펼쳐지고, i리그 최고의 팀을 가리는 연령별 '챔피언십'도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승리 목마른' 여자 배구, 일본서 승전보 전할까

발리볼네이션스리그 3주차 경기 현재 1승7패로 18개팀 중 17위

여자 배구 대표팀(세계랭킹 34위)이 7일 2025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차 경기가 열리는 일본 지바현으로 출국했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9일 오후 3시 30분 폴란드(3위), 10일 오후 7시 20분 일본(5위), 12일 오후 3시 30분 불가리아(20위), 13일 오전 11시 프랑스(17위)와 경기를 펼친다.
한국은 VNL 1~2주차 8경기에서 1승 7패를 기록해 18개 참가 팀 중 17위에 머물러있다.



여자배구대표팀이 7일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표팀은 9일부터 일본 지바현에서 2025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 3주차 경기를 펼친다. (대한배구협회 제공)

대표팀은 지난 달 24일 VNL 2주차 경기가 열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귀국했고, 진천선수촌에서 훈련했다.
한국은 3주차 경기에서 최소 1승 이상을 노린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에서는 한다혜와 박사람이 대표팀에 포함됐다. /연합뉴스